

 울릉크루즈 (주)

Web Contents

2024년 05월 03일 17시 44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3
[프레시안]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여객심터 개장... '관계기관 협업'이 해냈다	3
첨부파일(2)	3


[프레스시안]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여객심터 개장... '관계기관 협업'이 해냈다

작성일 2022.07.21
09:37

등록자 울릉_관리자 조회수 436

첨부파일(2)

 프레스시안(22.07.20)_1.jpg 0 hit/ 273.7 KB

 프레스시안(22.07.20)_2.jpg 92 hit/ 384.8 KB



(<http://www.tssc.co.kr>)



경북 포항 ~ 울릉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 이용객들을 수용할 대합실 등 여객편의시설이 없어 곤혹을 치르던 영일만항에 ‘여객심터’가 조성됐다.

지난 14일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영일만항 국제여객선부두에 임시 여객터가 완공됐다.

앞서 선사 측인 울릉크루즈의 해당 항로 사업승인 당시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까지 부담하기로 했으나 개인 사업자가 항만 부두에 임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법적 문제로 난항을 겪자 결국 경북도와 포항시, 울릉군이 예산 확보 등 편의시설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설 관리 주체와 건축 방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과 울릉군의 예산확보 문제로 수개월이 소요됐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3천여㎡ 규모의 편의시설(컨테이너)을 짓기로 최종 결정하고 관리는 포항시가 맡았다.

특히 이 사업 추진배경에는 크루즈 여객선 취항에 앞장섰던 남진복 경북도원이 울릉주민과 여행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도비 5억 확보지원 등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편의시설을 컨테이너 시설로 건축하게 된 것은 오는 해당 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이 2023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음에 따라서다. 터미널이 준공되면 컨테이너 시설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될 방침이다.

울릉주민 황 모(울릉읍)씨는 “울릉주민은 물론, 여행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주신 경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여객심터 이용 소감을 전했다.

기사전문 : 프레스리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2010424763079>)

목록

COPYRIGHT © UL CRUISE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http://www.tssc.co.kr>)



Web Contents